

## 플라톤의 『국가』 : 영혼의 윤리학

### 제 12장 국가의 정치체제와 각 인간상 III

#### ◆ 1교시 민주정체와 민주정체적 인간

지난번에 명예정체적인 인간하고 과도정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탄생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민주정체적인 인간하고 참주정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먼저 지난번에 명예정체적인 인간하고 과도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먼저 명예정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얘기하고 나서 그것하고 닮은 사람인 명예정체적인 인간이 어떤지,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과도정체가 어떻게 생기든지 이야기를 하고 과도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정체가 어떻게 생기든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정체적인 인간, 그 다음에 참주정체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 다음에 참주정체적인 인간, 그래서 이제 참주정체가 어떻게 생기는 지까지가 8권 끝까지고요. 9권 시작하면서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9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8권하고 9권은 권수는 바뀌지만 꼭 이어지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 ▲ 소크라테스가 본 민주정체

이제 민주정체의 경우인데, 사실 소크라테스 자신이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명예정체와 과도정체에 대해서 다소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민주정체와 참주정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이걸 뭐, 소크라테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아테네가 민주정을 취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가장 뭐랄까요, 민주정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럴까, 조심했던 것, 이런 것이 참주정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이런 것들이었으니까, 앞에 명예정체나 과도정체에 비해서 훨씬 더 뭐랄까요, 현실적인 적합성? 이런 것이 더 큰 것이 민주정체하고 참주정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민주정의 경우는 수업 초에도 이야기를 했습시다만,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는 전부 다 민주정이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민주정을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하고 있어요. 참주정체가 제일 나쁘지만 그것 바로 다음으로 나쁜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을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학자들이라고 하면 현대 사람들이죠, 20세기 이후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저런 논의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 ▲ 과도정체에서 민주정체로의 이행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 같은 건 민주정체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될 텐데요. 그게 532쪽부터 시작되는 얘기죠. 555의 b 중간쯤에 보면, 532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정도 됩니다. “과두 정체에서 민주 정체로 바뀌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다. 그것이 내세우게 된 좋은 것에 대한, 즉 최대한 부유해져야만 한다는 데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aplēstia) 때문이다.” 과두정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부유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부유함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민주정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것이, 과두정의 경우에 대해 소크라테스가 비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종류의 것을 전부 다 팔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과두정의 문제점으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기본적인 재산들 같은 것도 다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은, 팔아버린 사람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야기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부자들이 더 자기네들의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를 다 뺏아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뺏아 오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나 이런 사람들일 테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나면, 536쪽에 가면, 557 a 입니다. “따라서 민주 정체(dēmokratia)가 생기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겨서, 다른 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추방한 다음 나머지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시민권과 관직을 배정하게 되고, 또한 이 정체에서 관직들이 대체로 추첨에 의해서 할당될 때에 있어서라고 나는 생각하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생산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자족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 수업 전체 맥락에서 그렇게 썩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534쪽에 보시면요. 534쪽 나오기 전의 얘기는 돈벌이 하는 사람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들인데요. 여기서 534쪽에 넘어가서, “이와 같은 해악이 불타오르고 있는데도 저들은 누구든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그렇다고 다른 법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불을 끄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때 이 불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말하자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 가지 방법은 뭐냐 하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재산 처리를 전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일정 정도의 재산은 누구나 양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예 금지하는 방법. 또 하나의 법은 뭐냐 하면, 어떤 법인데요. “무슨 법에 따라서 말씀입니까? 앞의 것에 버금가는 것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훌륭함에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그래서 법이 자발적인 계약들의 대부분을 당사자의 위험 부담을 조건으로 체결할 것을 지시한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위험 부담을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한다, 라는 건데요. 거기 주(註)가 달려있지요. 주를 보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 이자 높이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까지도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고리 대금 같은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첫

번째 경우는 일정 정도의 재산을 아예 양도할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법은 그런 원천 봉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한테 그걸 빌려줘서 누가 어떤 돈을 빌렸을 때 고리대금 같은 것, 이자 해가지고 늘리고서 갚고 이러다보면 최소한의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예컨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카드 빚 썼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집도 날리고 거리에 나왔게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것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 ▲ 민주정체의 자유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양가감정

그럼 이제 민주정을 위한 혁명의 결과는 뭐냐. 이걸 다시 아까 536쪽으로 넘어가서요. 557b에 보면, “첫째로 이들은 자유로우며, 이 나라는 자유(eleutheria)와 언론 자유(parrhēsia)”,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exousia)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도 민주정하고 어떤 자유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 이런 겁니다. 정확한 자유민주주의의 그 개념하고 딱 맞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다, 그리고 나서 557쪽에 보면, “아마도 정체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다. 온갖 꽃의 수를 놓은 다채로운 외투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가, 밑에 가면, “이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그 밑의 줄 그게 재밌는 구절인데요. “따라서 이제껏 우리가 해왔듯, 나라를 수립코자 하는 사람은 아마도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가야만 될 것 같으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형태의 것을, 마치 정체들의 잡화점으로 찾아간 사람처럼 골라야 할 것 같고, 일단 고른 이상, 뜻대로 수립해야만 할 것 같으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크라테스 혹은 플라톤의 양가감정, 민주주의에 대한 양가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껏 우리가 해왔듯이 나라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가야만 될 것만 같다. 실제로 아테네가 민주적으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상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얘기 같은 거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국가 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성립된다고 한다면, 이런 소크라테스의 국가를 평하는 글 같은 건 쓰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자면 이상국가라는 게 오히려 좀 나쁜 것 아니냐.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국가편에서 이상 국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진짜 이상국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일종의 디스토피아를 그렸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 중간에 우리가 많이 안 읽었던 부분들에도 그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7권 끝부분이나 이런 데에 보면, 이 얘기는 한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상국가가 성립될 수 있으려면 1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시골에 보내버리고 혹은 다 죽여 버리고, 애들만 모아가지고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가 암시하는 것은 분명히 이상국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1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애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런 나라가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 지혜에만 몰두해버리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된다, 바로 그런 모습을 국가편에서 보여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해석을 하는 계열의 사람들이 요즘 유명한 스트라우스란 사람 있죠,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라고. 신자유주의의 뭐랄까요, 대부 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시카고 정치학과 그쪽 사람들.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국가』편을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 제자들 혹은 레오 스트라우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지 간에 지금 이 부분에서 보자면, 나름대로 어떤 점에서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자유로운 논의들이 다 가능하다, 그 정도는 분명히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좋게 보느냐?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좋게 봤다고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은 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디폴트(default)한 포지션이에요. 민주주의는 좋다. 누가 민주주의를 막 욕했던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욕했으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욕하고 있던 말이에요. 소크라테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를 욕한 게 아니다, 라고 보려는 생각이 밑바탕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분명히 우리한테 걸끄러운 점이 있어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자유로 가득 차고, 언론 자유로 가득 차고, 멋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게 잘못 됐냐? 우린 정말,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유·민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좀 약간 젊은 편입니다만...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자유나 민주, 이런 말만 들으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이러는데, 자유가 가득차고 이랬으니까 이 나라 잘못됐다 이러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 ▲ 평등한 자유에 대한 부정적 견해

일단 지금 여기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자유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죠. 자유와 평등이라는 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라는 건 뭐냐, 누구나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평등이라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자유를 얘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컨대 참주정에서 참주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러니까 독재정권에서 독재자가 가장 자유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독재가 자유를 억압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불평등한 자유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를 얘기할 때는 평등한 자유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평등 얘기도 같이 나오는 건데, 538쪽 같이 보시면요. c라고 된 데 조금 밑에 보시면 “민주정체는 이런 점들,을 그리고 그 밖에 유사한 점들을 갖고 있고, 또한 즐겁고 무정부 상태의 다채로운 정체이고, 평등한 사람에게도 평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종의 평등을

배분해주는 정체인 것으로 보이네.” 실질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자유에 대해서 반대한 것, 민주정체가 얘기하고 있는 평등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이때 평등이라는 것이 산술적인 평등이란 것에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평등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럴 텐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평등한 사람에게도, 아니면 평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평등을 배분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소크라테스 식으로 얘기하자면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 라는 정당화를 하고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입장으로 보면 평등한 사람, 평등하지 않은 사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만인은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왜 만인은 평등한가? 하고 얘기하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에 얼핏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가 평등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평등해야 된단, 라는 것이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정확하게 어떤 상태가 평등한 건데? 예컨대 누구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부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머릿수대로 나눈 거냐. 이게 평등이냐. 그런 식이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오히려 불평등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한 거다. 왜냐하면 일을 하나도 안한 사람하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눈다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능력에 따른 평등과 필요에 따른 평등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른 평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가 다 똑같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중증 장애가 있어 가지고 생활하는 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재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에 따른 평등 개념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재화를 똑같이 나눠가지고 다 나누는 것, 그런 경우에는 필요 별로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보다 더 많이 갖는 거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보다 못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소크라테스가 민주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그냥 무작정 평등을 이야기해서 산술적으로 나눠놓았지,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져야 하는가, 가진다는 것은 꼭 재산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종류의, 요즘말로 얘기하자면 권리라든지 이런 겁니다. 예컨대 관직 같은 것에 대해서, 관직을 추첨에 의해서 할당하는 것, 이런 것을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죠. 물론 조금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런 방식이라면 실질적으로 평등이 지켜지지도 않는다. 민주정에서 참주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작정의 자유, 평등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현대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고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왜곡해서 소크라테스를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 앞 구절 같은 곳에서 민주정체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이때 가장 아름답다는 말

은, 이 아름답다는 말은 훌륭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칼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한 것은 약간은 반어법적인 것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다채로운 것이어서 아름답다는 건데, 원래 한 색만 쪽 있는 것보다 이 색도 있고 저 색도 있는 게 다양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답다, 라고 얘기한 건데,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을 소크라테스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우리 마음에 들건, 안 들건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소크라테스가 마음에 안 들면 소크라테스가 잘못된 거죠. 그건 이제, 소크라테스를 우리 마음에 들도록 바꾸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 ▲ 민주정체적 인간

어쨌든 간에 538쪽의 끝에서부터는 민주정체적 인간은 어떤 식으로 생겨나는지를 이야기하고요. 사실 우리 수업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수업은 애초에 정치철학적인 측면들 같은 것, 형이상학적인 측면들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약간 좀 소홀히 하고, 윤리학적인 측면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가 더 우리 수업의 관심사이고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겨나느냐를 보니까, 역시 과도정치적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는데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541쪽을 먼저 잠깐 보시면요. 542쪽의 중간쯤에 d하고 e라고 된 곳 중간쯤에요. “방금 우리가 말했듯,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인색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수벌의 꿀을 맛보고서 온갖 종류의 다채로운 쾌락을 온갖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열화 같고 영리한 짐승들과 어울리게 될 때, 그의 내면에 있는 과도적 정체가 민주적 정체로 향하는 변화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과두정체적인 인간이면 이 사람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벌 2세를 생각하면 되요. 아버지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검소하게 살았는데, 자식은 돈도 많고, 주위에 돈 많은 걸 보고서 꼬이는 애들도 많아서 맨 날 술과, 여자와 혹은 남자와 쾌락을 누리고, 이러다보면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539-540쪽에 넘어가면서 중요한 구별을 합니다.

## ◆ 2교시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

### ▲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의 구별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구별을 하는데요. 539쪽에 e라고 된 곳을 보면요. 필요한 욕구는 무엇이나?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욕구들,” 첫 번째로 물리칠 수 없는 욕구. 두 번째로 “그것들이 충족됨으로써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욕구이고요. “이들 두 부류의 욕구는 우리의 천성에 의해서 갈구하게 마련이다.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말을 이것들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 ‘필요하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어에서도 ‘필연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서 necessary라고 하면 그것이 ‘필연적이다’라는 뜻도 되고, ‘필요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거죠. unnecessary라고 하면 ‘불필요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리칠 수 없는 욕구다’라는 것이 이 ‘필연적이다’라는 말과 잘 어울리는 거죠. 예컨대 밥을 먹어야 되는 욕구. 이런 것은 피할 수 없는 욕구예요. 밥 안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밥을 먹는 것은 건강을 주니까 이롭게 하기도 해요.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롭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전부 다 ‘필연적이다’ 혹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물리칠 수 없는 욕구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종류의 성적인 욕구 같은 것도 물리칠 수 없는 욕구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딱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욕구로는 보다 광범위하게 생각하자면 어떤 지적인 욕구 같은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역시 좀 해석에 따라 다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어쨌든 간에 밥 먹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필요한 욕구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불필요한 욕구는 무엇이나? 559 a 라고 된 데 밑을 보시면요. “젊어서부터 단련을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 욕구”, 그리고 이걸 이제 이것(필요한 욕구)과 대비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롭지도 않은 욕구.” 이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단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 이롭지도 않은, 그런 욕구. 필요한 욕구는 꼭 두 가지가 같이 있지 않아도,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주어도 필요한 욕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욕구는 이 조건(젊어서부터 단련을 한다면 벗어날 수 있는)도 만족시켜주고 이 조건(이롭지 않은)도 만족시켜주는 그런 욕구가 불필요한 욕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밑줄을 친 것처럼 단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욕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가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 ‘필요하다’라는 개념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중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잠자리에서 자는 게 꼭 필요해.’ ‘나는 50평 아파트에, 60평 아파트에, 70평 아파트에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나는 벤츠를 타야만 돼.’ 사람에게 따라서 그 필요를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 재는 밥만 먹어도 충분한, 그러니까 밥만 필요한 사람’, ‘재는 프랑스 음식을 먹어야지만 되는 사람,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가 굉장히 그 경계가 애매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필요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불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단순히 어떤 필요, 어떤 need를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필요한 욕구, 그러니까 어떤 need를 느껴서 어떤 것을 욕구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욕구가 아닌 거예요. 실질적인 need하고, need라고 느끼는 것. 실제 필요와 필요로 하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되고요.

여기 단련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욕구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벤츠 필요한 사람은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진짜로.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아주 멋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무슨 전자제품 하나를 딱 봤다, 혹은 예쁜 옷을 봤다, 그러면 ‘저건 내가 꼭 가져야 해’, ‘가지지 않으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진짜로 필요해요. 그거 물리칠 수 없는 욕구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단련을 통해서라고 했죠. 내가 어떤 필요라고 느끼기만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자면 물리칠 수 없는 욕구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물리칠 수 있는 욕구, 이렇게만 얘기해놓고 나면 물론 물리칠 수 있는 욕구들도 있지만, 내가 물리칠 수 없는 욕구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필요한 욕구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어려서부터 뭐랄까요, 오냐 오냐 해서 자란 사람의 경우에는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서 도대체 물리칠 수 없는 욕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물리칠 수 없는 욕구를 다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게 다 필요한 욕구이냐, 아니예요. 젊어서부터 단련을 했다면 벗어날 수 있었을 그럴 만한 욕구들은 전부 다 불필요한 욕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폭신평신했던 침대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침대가 아니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나는 침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침대에서 자는 것. 그렇지만 그런 건 젊어서부터 단련을 했으면 침대에서 자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불필요한 욕구가 되는 것이죠.

사실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구별하는 것은 상식적인 구별일 수도 있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보면 에피쿠로스학파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구별이 되고요. 에피쿠로스의 어떤 쾌락주의. 에피쿠로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라고 그러지만, 에피쿠로스학파도 오늘날 말하는 쾌락주의자의 그림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에피쿠로스가 가르친 쾌락주의는 오늘 말로 하자면 절제인 쾌락 같은 건데, 그런 경우에도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보면, 540쪽에 넘어가면 예를 들어요. “건강과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한 만큼은 먹으려는 욕구, 이런 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540 b에 보면 “빵에 대한 욕구는 그것이 유익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삶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 먹으면 죽는다는 점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음식에 대한 것. “요리한 음식에 대한 욕구도, 어떤 점에서는 좋은 상태의 유지에 이로움을 제공한다면, 필요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약간, 필요한 게 도대체 어디까지냐가 썩 분명치 않은 점이 등장하는데요. 요리한 음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육식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빵은 채식을 이야기하고요. 국가편 2권에도 보면 돼지들의 나라하고 호사스러운 나라를 이야기할 때, 돼지들의 나라라고 얘기하면 보통 채식을, 빵 먹는 얘기들만 나오고요. 요리 먹는 얘기 같은 건 이제 호사스러운 나라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요. 빵만 먹어도 죽진 않겠습니 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육식 혹은 요리, 이런 게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어느 정



도의 이로움을 제공한다면, 그러니까 물리칠 수 없는 욕구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점이 있다면 그것도 이쪽(필요한 욕구)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빵에 대한 욕구, 첫 번째 것은 물리칠 수 없는 욕구이기도 하고 당연히 빵도 먹으면 우리를 이롭게 하죠. 그 점에서 두 가지에 다 걸리는 건데, 그 다음에 요리한 음식은 첫 번째는 안 걸리지만 두 번째는 걸려서 필요한 욕구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걸 넘어서는 먹을 것들이나 이런 종류의 것.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음식이라든지, 중국 음식, 자장면 말고요. 진수성찬 이런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 같은 것은 전부 다 젊어서부터 억제되고 교육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몸에도 좀 해롭다. 요즘엔 비싼 음식 얘기하면서 웰-빙 음식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원래 진짜 비싼 음식, 건강에 별로 좋지도 않죠. 그 정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면, 불필요한 욕구는 낭비적인 것이고, 필요한 욕구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돈 벌어서 주는 것. 546쪽에 끝에 보면 “불필요한 것들은 낭비적인 것들이지만, 앞의 것들은 할 일을 위한 유용함 때문에 이윤을 남기게 해 줄 거다.” 돈 벌어서 주는 것, 그러니까 크레마티스티코스예요. 주에 나와 있죠. 540쪽에 주 51을 보면, “헬라스 말로 chrēsimos(유용한, 유익한)와 chrēmāistikos(돈벌이를 하게 하는, 이윤을 남기게 하는)가 쓰임새(chrēsis)와 관련해서 언어적 유사성을 갖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농언(弄言)을 하고 있다.” chrēsimos란 말이 유용한, chrēmāistikos가 돈벌이를 하게 하는, 어원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어서 농담 비슷하게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돈 벌어서 주는 것이라고, 소크라테스가 굳이 어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과도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욕구를 제한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도정체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하면, 필요한 욕구들을 채우는 데에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욕구들 같은 것은 억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수성가한 기업인, 먹고 싶은 것, 돈 버는 대로 프랑스 음식을 먹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곳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수성가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된단 말이에요. 낭비 안 하고, 비싼 음식 안 먹고 비싼 차 안 타고 돈 번 사람, 그런 사람이 과도정체적인 인간하고 잘 맞는 거예요. 어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사람이죠. 그런 걸 충족시키면 돈을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잘 먹으면 그만큼 일도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에도 돈을 안 쓰니까 돈을 벌어진단,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욕구를 하게 되면 이리저리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건데요.

#### ▲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 간의 전쟁 - 민주정체적 인간의 탄생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왜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종류의 욕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 사이에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쪽으로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막 이러다가 중간쯤에 가면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되는 건데요. 541쪽부터가 거기 쪽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e 밑에서부터 보면 “한 부류가, 닳은 것이 닳은 것의 지원을 받을 때처럼, 외부에서 동맹세력의 지원을 받을 때 나라가 바뀌듯, 젊은이 또한 그 욕구들 중의 한 부류가 외부의 욕구들 중에서 동류와 닳은 종류인 것의 지원을 받게 될 때 바뀐다. 그런데 내부에 과도정체적인 동맹세력의 반대 지원을 받으면 아버지 쪽에서 받게 되었든 친척에서 받게 되었든 반란과 역 반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민주

정체적인 쪽이 과도정체 쪽에 굴복하게 되어서 일부 소멸하고... 어찌고저찌고 해서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질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필요한 욕구는 과도정체적인 욕구들이에요. 불필요한 욕구들이 민주정체적인 것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과도정체적인 욕구들, 필요한 욕구들, 민주정체적인 욕구들, 불필요한 욕구들 얘기할 때는 영혼에서, 영혼을 세부분으로 나눴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성적인 부분, 기개적인 부분, 욕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욕구적인 부분 내의 구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구적인 부분에 필요한, 불필요한 욕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양쪽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필요한 욕구 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 안에서 부끄러움이 생기고, 그래서 이쪽에서 불필요한 욕구를 몰아내요. 말하자면, 어느 날 탕자의 비유처럼 이리저리 가산을 탕진하고 하다가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 낭비하면서 살면 되겠냐.’ ‘아 창피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 마음을 고쳐먹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부끄러워.’ 이러다가 그러면서 질서가 잡혔다가요. 그랬다가 질서가 잠깐 잡혔지만, 이런저런 욕구들에 대한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개네가 또 득세를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에는 득세를 해서 애 쪽이 말하자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543쪽에 보시면 d라고 된데 바로 밑에 보시면 연장자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첫째 줄부터 한 번 봅시다. 543쪽 첫째 줄부터요. “친척들한테서 혼의 절약하는 부분에 어떤 지원이라도 미칠 경우에는, 허풍떠는 말이 젊은이 안에 있는 왕성(王城)의 문들을 닫아 버린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귀를 그냥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아이도스, 공경(aidōs)을 어리석음이라고 일컫는다.” 공경이라는 말은 사실 앞에 얘기했던 부끄러움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aidōs라는 말인데, ‘절제’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이런 것들하고, ‘수치심’ 혹은 ‘두려움’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엄치’, 이런 것은 ‘어리석다’라고 그러고요. 쪽 밑에 내려가 보시면 e라고 된 데 밑에서부터 보시면, “오만 무례함(hybris)과 무정부상태(무질서: anarchia), 낭비성,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이런 것이 득세하도록 만들어서 오만 무례함을 교양 있다(eupaideusia)고 얘기하고, 무정부상태를 자유라 하고, 낭비를 도량(megaloprepeia)이라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을 용기라고 부른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만 무례한 게 왜 교양 있다, 라고 그러냐 하면... 글썄, 이건 뭐 아마도 짐작컨대, ‘오만 무례하다’라는 게 위에 히브리스(hybris)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스라는 말은 그리스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신에 대한 불경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신과 동등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히브리스가 되는 건데요. 자기 자신보다 더 스스로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저 노망들이 하는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오만무례한 건데 그것을 교양이 있다, 라고 하는... 저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공자 맹자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머리가 들 깨쳐가지고 저판 소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오만 무례함을 교양이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머리가 잘 깨졌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민주정체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자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철학 왕’을 이야기할 때는 ‘철학 왕’이 바로 자유의 구현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상국가의 ‘철학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유라는 것을, 자유라는 가치를 소크라테스가 나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산술적인 평등을 가지고서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 멋대로 하는 것. 이건 오히려 자유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무질서한 거지, 무질서가 자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럴 때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낭비하는 것, 실컷 막 쓰는 것을 도량 있다. 씹씹이가 큰 것 가지고 마음씨가 넓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걸 용기라 그러고. 이렇게 기본적인 덕목들을 전도된 상태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 ▲ 민주정체적인 인간의 특성 - 방향성이 없는 삶

그렇게 돼서 그런 식으로 쪽 하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545쪽에, 그게 이제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애깁니다. 545쪽 처음부터 보면요.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욕구에 영합하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술에 취해서 피리 소리 같은 것을 듣고, 어떤 때는...”, 이게 재밌어요. 물만 마시면서 살 빼고, 어떤 때는 신체단련도 막 해요. 어떤 때는 신체단련 막 하다가 만사가 귀찮다고 그러고서 게으름을 펴요. 어떤 때는 철학에 몰두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치에 관여하기도 하구요. 어떤 때는 별떡 일어나서 생각되는 대로 말하기도 하구요. 어떤 때는 전쟁하고 있으면 전쟁하는 데도 갔다가, 어떤 때는 돈 버는데 가면 돈 버는 데도 갔다가... 여기서 어떤 때는 철학에 몰두하기도 한다, 이점 가지고도 민주정체나 민주정체적인 인간을 좋게 생각하려는 사람들은, 철학 얘기가 나온 게 민주정체적인 인간 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좋게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삶에 방향성이 없단 얘기에요, 말하자면. 이거 조금 했다가 아, 좀 지겨워, 안 하고 또 요거 조금 했다가 좀 안하고, 저것도 한 번 깨작거리 봤다가, 저것도 한 번 좀 깨작거리 봤다가... 그러니까 아까 불필요한 욕구를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불필요한 욕구만 무작정 채우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가서는 별의별 종류의 욕구를 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별의별 종류의 욕구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욕구가 다른 종류의 욕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다. 굳이 서로 그 두 종류의 욕구가 갈등을 벌였을 때, 한 욕구를 굳이 더 채울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서로 대립하는 두 종류의 욕구가 있어요. 내가 내일, 예컨대, 무슨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공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친구가 와서 지금 놀아야 되겠다고 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을 때, 어떤 쪽을 따르는 것이 더 좋냐? 그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쪽이 나오면 아, 이쪽 가서 술 마시고. 이러면 이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작정 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철학에 몰두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때는 막 신체 단련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때그때, 어떨 때는 요거 좀 했다가 귀가 좀 얹아가지고 요게 좋다 그러면, 아 그거 좋

나? 좀 해보다가. 끈기는 전혀 없고요. 좀 해보다 말구. 그러니까 공부하고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딜레탕트(dilettante)라 그러죠. 뭐 이것도 좀 건드려 봤다가 요것도 좀 건드려봤다가 이런 식으로. 그게 민주정체적인 인간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가 좋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참주정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참주정체적인 인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이제 짧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리를 좀, 전체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다음 시간이 철학 왕과 행복으로 되어있습시다만, 정리하는 게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리하는 작업이 9권 끝날 때까지 가는 건데, 오늘 이제 그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다섯 유형의 사람들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3교시 참주정체와 참주정체적 인간

#### ▲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로의 이행

참주정체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9권 끝날 때까지인데요. 여긴 제가 조금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참주정의 탄생은 549쪽에 보시면, 중간쯤 e라고 된 데 조금 밑에, 564 a 시작하는 그 근처예요. “과두 정체에 생겨서 이를 망쳐놓은 질병과 똑같은 것이 민주 정체에서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한걸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생겨서는 이를 노예화해 버린다. 그래서 지나침은 반대쪽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지나친 자유가 지나친 예속 이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자면 아까 자유, 민주정의 자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조금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론 산술적인 평등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 개념은 사실은 잘못된 자유이다. 무정부 상태를 자유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위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바로 그런 상태로부터 참주정이 탄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수업 초에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역사적으로 히틀러 체제가, 나치즘이 득세했던 걸 보면, 독일이 당시에 일종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서 투표해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떤 혁명을 통해서 히틀러가 잡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등장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말 좀 잘하고, 대중 연설가 같은 사람이 생겨가지고 대중을 휘어잡으면, 이 대중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좀 혹하면 ‘아, 그런가보다’, 여기서 좀 혹하면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따라다니는 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말 좀 잘하는 애가 나와서 딱 마음을 휘어잡으면 ‘야, 저 사람이 진짜구나’ 이러고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요즘 사회에서도 많이 보고 있죠. 어떤 종류의 권위들에 대해서 누구나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라는 것은 산술적인 평등 그리고 모든 종류의 권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권위가 과학자의 권위가 되었던 평등가의 권위가 되었든지 간에, 그런 권위들 같은 것 다 부정하고 자기 마음에 그냥 딱 들면 그게 그냥 최고인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조금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그 순간에 그게 최고인 것 같다고 하면 그냥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남이 좀 누가, 권위 있는 사람이 그게 사실은 최고가 아니다 라고 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잘난 척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너나 나나 똑같다. 과학자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랑 똑같고, 평론가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고, 근거 없이 그냥 평등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순간 말만 좀 잘해서 대중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생기면 그리로 확 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로 확 몰리면 참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위에 경호원 같은 걸 두게 되고요. 그런 등등을 해가지고, 예컨대, 553 쪽 같은데 보시면 d라고 된 데에, “참주가 자라나게 될 때는 민중의 선도자 격인 뿌리 의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게 명백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중의 선봉에, 대중의 어떤 선봉에 선 애가 어떻게 하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e 밑에 좀 보시면 “민중의 선봉에 선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을 거느리고

서, 동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가지 않고, 사람을 부당하게 고발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중의 힘을 이끌어서 죽여 버리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채무의 무효화나 토지 재분배 같은 암시”를 해요. 그건 나중에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주가 생겨난다. 참주가 생겨나고 나면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길게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정도 얘기고요. 9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 불법적인 욕구와 참주정체적 인간의 탄생

9권으로 넘어가면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서는 다시 또 욕구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욕구,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태어날 때, 이 욕구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욕구적인 부분들의 욕구들을 나눈 거라고 그랬어요. 방금 지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얘기하자면, 영혼의 세 부분이 있는데, 이성이 있고, 기개가 있고,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 기개, 욕구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성적인 부분도 나름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기개적인 부분도 나름의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욕구, 불필요한 욕구를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욕구적인 부분 안에 있는 욕구들을 가지고서 둘로 나눈 거라고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성적인 욕구는 그럼 어디에 속하느냐, 아마도 필요한 욕구에 속하겠죠, 이득에 속하는 걸로 본다면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정체적인 인간이 탄생하는 데에 욕구들의 어떤 전쟁,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욕구적인 부분 내에서의 필요한 욕구와 불필요한 욕구를 이야기하는 건데, 불필요한 욕구 중에서도 불법적인 욕구를 이야기를 해요. 564쪽 571 b에 b, c넘어가는 그 중간쯤에 보면, “욕구들에 있어서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불필요한 즐거움(hēdonē)과 욕구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불법적인 것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욕구들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불법적인, 파라노모스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 불법적인 욕구라는 것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겠습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이성(logos)을 동반한 더 나은 욕구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어져 버리거나 약한 상태로 남아 있거나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더 강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욕구이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잠자고 있을 때 꿈에서나 생길 수 있는 그런 욕구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부끄러움이나 분별을 벗어나 있는 욕구인 거죠. 556쪽 넘어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근친상간에 대한 욕구, 수간에 대한 욕구, 살해 욕구, 도대체 뭐든지 다 먹어보고 싶은, 어떤 음식이든지 삼가는 일이 없는 그런 욕구들. 프로이트 식으로 얘기하자면 원초적인 욕구, 꿈속에서나 드러날 수 있는 욕구,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지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에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프로이트가 에로스, 타나토스, 이런 얘기를 할 때 소크라테스 『국가』편에 나오는 얘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물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영혼 세 부분 나눈 것이 프로이트가 세 부분 나눈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프로이트가 에고와 슈퍼에고와 이드로 나눈 것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있는데, 그렇게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건 잘못된 건데, 어쨌든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불필요한

욕구의 대표적인 것을 에로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것은 성적인 욕망 같은 거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에로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향연』 같은 데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에로스가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추구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선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거죠. 1권에 보시면 케팔로스가 나이가 드니까, 어렸을 땐 성적인 욕구에 시달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 광포한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좋다, 이런 얘기를 케팔로스가 했었는데요. 우리 책을 보면 58쪽 같은 데요. 그때도 광포한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이 ‘에로스’를 얘기한 거였어요.

여기 불법적인 욕구는, 음 불법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고, 불법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드디어 참주정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는 도대체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욕구인데, 보통 불필요한 욕구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욕구라고 해서 전혀 브레이크가 없는 욕구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라 하더라도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치닫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불법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허용되는 그런 욕구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자유의 극치에 다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어머니와 성관계하는 것이라든지,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 누구든 죽이는 것, 이런 것은 다 제약이 없는 거예요. 567쪽 같은 데 보시면요, b넘어가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유익하고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는 의견이나 욕구,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죽여 버리고, 그에게서 내쫓아버려서 그에게서 절제를 숙청하고 밖에서 들여온 광기로 채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참주적인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528쪽 넘어가면 술 취한 사람이나 반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도 간단하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안 끌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이런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실제로 참주가 되면 최악의 상태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묘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시대는 플라톤보다 한참 뒤입니다만, 칼리굴라 아시죠. 로마시대의 칼리굴라를 묘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자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실제 참주가 되어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러니까, 칼리굴라 같은 경우는 근친상간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언제 암살의 위험이 있을지 몰라서 매일 떨고 지낸단 말이에요. 자기할 걸 다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실제 참주가 되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 ▲ 민주, 참주정체적 인간과 명예, 과두정체적 인간의 차이

정리를 이제 좀 하자면,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어떤 종류의 욕구이든지 욕구의 평등을 주장해서, 어떤 종류의 욕구가 다른 어떤 종류의 욕구보다 더 낫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그때 어떤 종류의 욕구가 생기면 욕구가 생기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민주정체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이렇게 좀 완전히 불법적인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도 못 하고요. 물론 민주정체적인 인간도 컨트롤하지 못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철학하는 것 재미있나보다 싶으면, 철학도 할 수 있어요. 참주정체적인 인간은 철학하는 거 재밌긴 뭐가 재밌어, 그러면서 혹시라도 좀 좋은 게 있으려고 하면 그걸 다 죽여 버리는 그런 인간인 거죠. 참주정체적인 인간의 이런 욕구는 이 원래의 그림,

이성, 기개, 욕구, 이 틀에서 보게 되면 이성이나 기개 같은 것은 이런 불법적인 욕구를 승인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예컨대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얘기들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다섯 종류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의로운 인간을 빼고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명예정체적인 인간, 그 다음에 과두정체적인 인간, 민주정체적인 인간, 그 다음에 이제 참주정체적인 인간, 이렇게 있는 건데요.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면, 말 그대로 명예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라는 것은 기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넷은 전부 다 부정의한 사람들이에요. 정의로운 인간은 이성 주도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기개가 주도하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뭐냐, 욕구적인 부분이 주도하는 인간이었던 말이에요. 이 틀은 다음 시간에 가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때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기개가 바라보고 있는 기개와 관련이 있는 어떤 명예, 욕구, 이건 돈이죠. 이성하고 관련이 있는 건 진리가 될 거예요. 이 진리, 명예, 돈,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요. 명예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명예를 중시해요. 명예를 중시여기면 당연히 기개적인 부분은 명예를 추구하도록 되어있던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은 뭘 하나, 명예정체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은 명예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성이 명예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명예를 추구하도록 질서 지워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 ▲ 규범적 지배와 우세적 지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하기를 영혼의 지배하고 관련해서 두 종류의 지배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 그 구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규범적인 지배, 이건 장기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normative rule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pre-dominant rule,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우세적 지배, 말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이건(단기적인 지배 pre-dominant rule)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상기해보자면, 내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하겠다, 지금 놀고 싶다, 이런 욕구의 갈등이 있을 때 이성이 지금 이순간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내렸던 말이에요. 이성이 두 길이 있을 때, A라는 길과 B라는 길이 있을 때, 이성이 지금 이 순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로 이야기하면 이건 (pre-dominant rule) 순간적인 어떤 것, 이건(normative rule) 지속적인 것. 어떤 특정한 시점에 과연 A를 할 것인가, B를 할 것인가라는 결정의 순간이 있겠죠.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A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고, B를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순간 A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A를 했으면 어떻게 되요? 이성이 이 순간 지배를 한 거예요. 그 때의 지배는 무엇이나, 우세적인 지배, 어떤 순간적인 지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B를 했다고 그러면, 이때 B가 술 마시고 싶은 욕구였다고 한다면 그건 욕구적인 부분과 상관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게 뭐예요? 욕구적인 부분이 우세적인 지배를 하게 된 것이겠죠. 순간적인 어떤 지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했는데, 술에 대한 유혹에 저서 술 마시러 가서 술 마시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술 마신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성이 우세적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욕구적인 부분이 우세적인 지배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순간적인 지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규범적인 지배 혹은 지속적인 지배에서,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바로 기개적인 부분이 규범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이성은 뭐냐 하면, 이 명예라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명예가 좋다, 라는 것을 이성이 수긍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성이 계산을 해줘요. 명예정체적인 인간의 욕구는 어떻게 되느냐. 욕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명예를 잘 달성하는 데에 좋은 욕구들, 그런 정도의 한도 내에서 이 욕구적인 부분의 욕구들이 채워지는 사람이 명예정체적인 사람이에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욕구적인 부분하고 관련된 건 돈이에요. 그러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욕구적인 부분에 돈이 추가되고, 이성하고 기개는 뭘 하느냐, 이성은 명예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 명예가 진짜 좋은 거다, 라고 판단을 내려서 하는 것처럼 과두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돈이 진짜 좋은 거다.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욕구적인 부분이 규범적으로 지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돈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돈 잘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 같은 것들도 계산을 해주고요. 기개 부분은 뭘 하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진짜 명예로운 사람이다, 명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가치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존경할만한 사람이다’, 돈 많은 사람을 보면 ‘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건희 같은 사람 보고서 ‘나의 영웅은 이건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개도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존경할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욕구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요한 욕구들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요. 욕구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욕구, 불필요한 욕구 그 다음 불필요한 욕구 내에서 불법적인 욕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 ▲ 규범적 지배가 없는 민주정체적 인간과 참주정체적 인간

정의로운 인간, 명예정체적인 인간,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영혼의 세 부분에 맞게 어떤 규범적인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규범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영혼의 다른 부분은 그것을 따라서 서포트(support) 해 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민주정체적인 인간의 경우에는 규범적인 지배가 없어요. 규범적인 지배가 있기 위해선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좋은 게 뭐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규범적인 지배가 가능한 거예요. 정의로운 인간의 경우에는 지금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정의로운 인간은 진짜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명예정체적인 인간은 명예가 진짜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해서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과두정체적인 인간은 돈이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것보다 저것이 특별히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명예를 추구하느냐, 아니,

뭐 꼭 명예만 추구해야 되나, 돈하고 명예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돈 좀 벌지, 뭐 명예 좀 손상 입으면 어때, 돈 좀 벌다가 아, 돈 꼭 벌어야 되나, 한 번 쓸 땐 써야지, 뭐 이려고서 돈을 또 다 다 날릴 수도 있고요. 공부도 좀 해볼까, 해서 철학도 좀 할 수도 있고요. 뭐가 특별히 좋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요. 뭐가 특별히 좋다, 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무엇인가 목표가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세적인 지배는 그때그때 따라 있을 수가 있고요. 이성이, 지속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이 순간에는 이성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이거 하는 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순간에는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저거 하지 말고, 이성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성의 판단이 아까의 경우와는 다른 거예요. 아까의 경우에는 이성의 판단이 지속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매순간 이때 이 순간에 저랬다, 저 순간에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계속 좋은 거야 명예가 계속 좋은 거야’,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명예정체적인 인간. ‘돈이 좋은 거야’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두정체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민주정체적인 인간은 ‘이 땐 뭐 이게 좋네, 저땐 저게 좋네.’ 라고 판단을 내리지만, 그때 이성이 그래도 판단 작용을 하긴 해요. 그렇죠? 아, 이게 좋은 거, 철학 한 번 해보자. 이성이 판단을 한 번 내리고 그것에 따라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민주정체적인 인간까지만 해도 이성이 우세적인 지배는 가능해요. 각각의 순간에 이성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주정체적인 인간까지 가게 되면, 참주정체적인 인간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욕구는 불법적인 욕구라고 그랬어요. 불법적인 욕구는 이성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그런 종류의 욕구까지 이성이 ‘좋다’라고 승인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욕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세적인 지배조차도 이성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성과 기개는 할 일이 아무 것도 없고, 거의 한탄만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성하고 기개는... 이성이 어떤 것이 좋다는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개는 그것에 대한 존경심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개라고 한다면, 참주정체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불법적인 욕구들은, 그걸 도대체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스스로도 민망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성과 기개가 전부 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사람이 되고요. 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일부인 불법적인 욕구가 이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나서 과연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지 따져보자, 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저기 그 574쪽부터, 574쪽에 밑에 e라고 된 데, 576에 e 밑에서부터 보시면, “참주정체의 나라보다 비참한 나라가 없고 왕도정치의 나라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없다는 게 누구에게나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디가 더 좋냐하는 이야기가 쪽 나옵니다만, 본격적으로 누가 더 좋은지를 따져보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581쪽부터입니다.